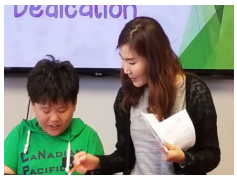
주안에 News InChrist

주.안.에.교.회.뉴.스.레.터.

InChrist CommunityChurch



9
Sep. 2017
Vol.5 No.9

■ 주안에훈련
■ 야구팀 소식
■ 특별새벽집회
■ 교육부 소식 • 간증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고된 연습과 인내 첫승의 기쁨…

교회대항 야구리그 시즌 첫경기에서 전년도 우승팀 또감사교회와의 시합에서 1회말 수비를 우리 주안에 야구팀이 무실점으로 막은 후에 덕아웃으로 들어오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사진: 이광영 기자/ 관련기사: 4면〉

인터넷 언론 허위보도 교회측 승소

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가 교회뉴스를 다루는 한 인터넷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2년 반 만에 승소로 마무리 되었다.

뉴스M이라는 매체가 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에 대해 허위와 비방과 인신공격적 제보 내용을 사실확인 없이, 증빙 없이 무차별적으로 보도해 왔다. 이로 인한 우리 교회와 최혁 담임목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사실인양 걷잡을 수 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매체의 보도행태는 갈수록 도를 더했고, 확산되는 루머와 교계의 부정적 여론에 담임목사와 교회의 명예가 한인사회의 가십거리가 되고, 보도 내용에 상처를 입은 신입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주안에교회로서는 가장 바라지 않았던 방법이었지만 법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한 목회자와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사회적 보호장치였다.

이번 승소에 인해 교회와 담임목사가 입은 깊은 상처가 원상복구 될 수는 없지만 이제 교회는 앞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하겠다.

〈자세한 기사는 2면에 있습니다〉

| 오희경 기자 |

■ 뉴스M 상대 '명예훼손' 승소

허위기사 삭제 · 배상 판결… 3년 소송 마무리

2014년 6월 16일, 인터넷 신문 "뉴스M 닷컴"에 주안에교회와 최혁담임 목사님에 대한 사실무근의 음해성 기사가 실리면서 이 사건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대항할 가치가 없어 보여서 교회측에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도 높은 비방기사가 이어졌고, 인터넷상의 다른 사이트에도 이 기사들이 옮겨지면서 외부인들은 물론이고 교회내 성도들까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배심원 재판이 계속되던 5주 동안 매일 법정 밖에서 함께 손 잡고 기도하는 교우들

이에 교회측에서는 "뉴스M"측에 기사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점점 무성한 소문만 연기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염려했던 것처럼, 아직 믿음이 자리잡지 않은 초신자들과,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새로이 신앙생활을 다짐하려던 새신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던 등록 교인들마저도 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결국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 서면요청 마저도 번번히 거절한 뉴스M/뉴스엔조이 측에서는 기사를 내리길 원하면 소송을 하라는 무례한 답만을 보내왔을 뿐이었다.

교회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과 망설임이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언론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등에 엎고 선량한 목사님들과 교회들에 정신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기에, 주안에교회는 길고도 무거운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1월 7일 주안에교회와 최혁 담임목사님(원고) 은 "뉴스M 닷컴" 과 "미주 뉴스앤조이" 및 관계자들(피고)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로부터 2년 7개월을 끌어오던 소송은 마침내 지난 8월 14일 부터 9월 13일까지 5주간 진행되었던 배심원 평결로써 막을 내렸다. 배심원들은, 피고측에 제보자들이 전해준 허위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무책임하게 보도를 해서 원고측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인정된다며 배상금 97만 5,001달러와 법정비용을 배상하고 관련기사 12 건을 모두 사이트에서 삭제할 것을 명령하면서 주안에교회와 담임목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원래 민사소송의 배심원 평결은 12 명의 배심원 중에 9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어야 verdict(평결)이 나왔다고 할 수 있기에, 아주 신중하고도 엄숙한 과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며, 진실과 진리와 정의에 마음을 모아준 모든 배심원들께 경의를 표한다. 또한 시작부터 끝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의 섭리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실만을 털어놓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 이러한 허위기사들과 소문들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받았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최혁목사님과 주안에교회 당회는, 지금이라도 오해와 진실이 밝혀졌음을 감사드리며, 이번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배상금이 지급되면 전액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5주 동안의 법정 경험을 통해서 함께 마음아파하며 함께 분노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기도 드렸던 귀한 분들과의 시간들이 소중하게 기억될듯싶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웹사이트 · 관련기사 링크해 볼 수 있습니다〉 | 오희경 기자 |

■ 제12기 주안에삶

새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는 기쁨

또 한해의 후반부를 장식하게 되는 시간들 속에 9월20일 수요일 저녁 7:30~9:30까지 "주안에 삶" 12기 오리엔테이션이 밸리채플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7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하는 결단의 시간이며 세상이 주는 유혹들과 싸우면서 이겨 나아가야 하는 나 자신과의 약속임을 암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기 2기 때보다 수강자수가 줄어 아쉽기는 했지만 의외로 교회 등록 새신자 성도님들의 관심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평신도 사역원 사역자님들에게는 끊임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듯 했습니다. "주안에교회" 교인이면 필수로 해야 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을 만큼 쉽고도 중요한 과정이기에 인도자님들의 마음가짐 또한 숙연해 보였습니다. Class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본인 자신도 더욱 성숙해짐을 느끼고 매일 삶에 적용하기에 주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뿌듯함을 느끼신다는 리더님들에게 화이팅의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성우 전도사님의 기도와 찬양으로 앞으로의 7주간의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성령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였기에 드려지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뜨거움을 감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시작하는 첫 시간을 예배자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은혜의 풍성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어 양목사님의(히브리서 13:17) 말씀으로 "유익을 얻으려면..."이란 제목 아래 순종과 복종의 마음으로 훈련생들은 리더를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순종의 자리에서 수업시간에 인도자가 말하는 모든 말씀에 청종하는 복종이 있어야만 유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많은 걸 내려놓아야 하는 시간, 욕심이 버려지게 되는 시간, 절제의 시간, 아픈 마음이 힐링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훈련생들의 마음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LA채플 또한 밸리채플과는 달리 연령층도 젊고 숫적으로 많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 우리 주안에교회는 진정 크리스천의 기초가 되는 기둥들이 세워져 단단한 반석위에 빛나게 될 것임을 확신해 봅니다. | 오윤선 기자 |

■ 제4기 주안에빛(플러튼)

이스라엘의 역사와 구원 · 하나님의 섭리 놀라워

'주안에 빛' 5기 교육이 지난 12주 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마침내 9월 12일 교육을 마치고 17일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으로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탄은 이러한 점을 노려 우리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안에교회에서는 많은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고, 교우들에게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말씀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주안에 빛'은 12주 동안의 길고도 어려운 공부이지만 지난 6월 30여 명의 교우들이 도전한 끝에 한, 두 명만 빼고 모두 졸업을 하는 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졸업생 여러 분의 소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12주간 주안에 빛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조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안에서 주권적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안에 말씀 과정을 통해 계속된 말씀 읽기의 기초에 주안에 빛을 통해 깨달은 그 말씀의 의미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다시 발견하고 다짐과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은총도 함께 주실 것을 감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이 과정을 위해서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안에 빛' 수료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조성운 기자 |

■ 야구팀 소식

투아웃 만루, 꿈같은 안타 "이 맛에 야구하죠"

주안에교회 야구팀이 드디어 첫 승을 올렸다. 지난 9월 9일(토요일) 오전 9시, 보통 때 같으면 토요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휴식을 갖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해 출근을 해야 할 시간에, 우리 주안에교회 야구팀원들은 이른 아침 8시에 Azusa 하이스쿨에 모여 9시부터 있을 교회대항 야구 가을리그 첫 시합에 모두 기대 반 긴장 반 연습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교회대항 시합은 물론 사회인야구 리그에도 유니폼까지 맞추어 입고 적극 참여하였지만, 단 한차례도 승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상대방의 자격미달로 몰수승을 거둔 적은 있지만 당당히 실력을 겨뤄 이긴적이 없어서 모두가 승리에 매우 목말라있는 상황이었다.

첫 번 시합의 상대는 실력이 만만치 않은 또감사교회였다. 하지만 우리 주안에교회 야구팀은 선수 출신인 조민철 성도(밸리)의 특별코치로, 매주일 밤 8시, 던스모어팍에 모여 지난 몇 주 동안 훈련을 받고, 사기가 충천한 상태로 1회초 공격에서 3점을 내며 앞서 나갔다. 6:2로 앞서가던 4회초 공격상황. 우리는 더욱 점수차를 벌리려 애쓰고 있었으나 상대 수비에 막혀 투아웃까지 되고…그러나 긴장이 맴도는 투아웃 만루상황에, 이원근집사가 천금같은 우전안타를 치고 타점을 기록한 뒤 연이어 타점과 득점으로 3득점. 이후에 온 선수들이 15안타를 골고루 몰아쳐 결국 시합은 11:6 큰 점수차의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이어진 2째주 시합에서도 청지기교회를 상대로 6:5 승리, 2연승을 거두었다.

많은 운동시합을 하다 보면 너무 승리의 의욕이 앞서서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우리 주안에 야구팀은 승부보다는 믿는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간의 단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팀장이신 송태일 집사는 설명한다.

이제 첫 승을 거둔 만큼 6팀(주안에교회, 남가주교회, 든든한교회, 또감사교회, 온누리교회, 청지기교회)이 풀 리그로 겨루는 이번 가을리그에서 우리 주안에교회가 당당히 우승하기를 기대하고 또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사회인 리그에서도 더욱 좋은 성적을 올리실 것을 응원드린다.

지금은 12명의 선수가 열심히 훈련과 시합에 참여하고 있지만, 야구를 사랑하는 주안에교회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환영하므로 많이 Join하셔서 운동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실 것을 권면하였다.

(문의: 플러튼/LA채플 송태일 집사 213-550-6990. 밸리채플 스티븐윤 집사 213-863-0777)

■ 특별새벽집회(LA)

"하나님을 현실로" 은혜로운 말씀 뜨거운 간구

지난 9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LA채플에서는, LA채플과 플러튼채플의 합병을 위한 특별새벽예배를 가졌습니다.

최혁 목사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단의 신앙"을 전하시며,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분별하여 할례 받은 자의 신앙을 회복하실 것을 권면했습니다. 아울러 나의 문제를 현실로 받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현실로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다루어 주심을 믿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시어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 삼아 살아가시기를 강조하셨습니다.

매일 100여명의 성도님들이 참석하시어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LA채플과 플러튼채플이 순조롭게 하나되게 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또 지난 3년동안 우리 주안에교회를 공격하던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진행될 제 6기 힐링캠프와 구역장훈련을 통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합심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주안에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갈 것입니다. 두 채플의 합병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을 믿고, 이제 주안에교회가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양적으로도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찬양팀(플러튼, 밸리)

강도 높은 연습, 뜨거운 마음

주안에교회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최혁 목사님의 설교이다. 한국과 미국을 망라하여 명설교로 알려진 목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최혁 목사님처럼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진정한 회개와 세상 삶에의 적용과 실천에까지 이르는 설교를 매 주일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주안에 교회에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다. 바로 예배 때마다 온 교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다.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길잡이, 삶의 목적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고 있지만, 주안에 교회처럼, 뜨겁고 감동이 넘치는, 감사와 회개가 절로 일어나는 찬양을 매 시간 올려드리는 교회는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찬양을 위해 수고하는 찬양팀이 주안에교회에는

각 채플마다 있고, 플러튼 채플의 리더는 황종훈 집사님이시다. 황집사님은 주안에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찬양팀으로 봉사한 경력이 없다. 최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주안에 교회 밸리 채플에 등록을 하고, 당시 이성우 전도사님이 이끄시는 뜨거운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팀에 합류를 하였다. 그리고 매주 찬양팀의 멤버로 찬양 연습을 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기를 삼 년 여 한 끝에, 올 초부터는 플러튼 찬양팀의 리더를 맡아 매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의 선봉에 서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10여 명의 찬양팀들이 매주 한두 번씩 모여 강도 높은 연습을 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각 멤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철한 봉사정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찬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다.

"찬양팀 모든 멤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저를 이렇게 까지 사랑해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대원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합니다." 짧은 지면으로 황집사님의 감사를 다 실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 보컬부터 악기 연주자에 이르기까지 플러튼 채플의 찬양팀은 주안에교회 최고의 찬양팀, 아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조성운 기자 |

영적전쟁 선봉대, 예배의 선봉대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주안에교회 찬양팀의 팀웍은 최소한 주안에교회 최강이 아닐까 싶다. 김진석 장로를 시작으로 강병찬 전도사, 강윤식 집사, 김은영 집사, 류명수 집사, 박경숙 권사, 윤스티븐 집사, 이정현 자매, 임아라 간사, 조혜리 자매, 최형선 집사까지 다른 사역팀과 다르게 교회 사역자부터 청년부소속 자매에 이르는 연령과 소속을 아우르는 팀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성훈련을 포함한 연습시간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헌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에 모여 먼저 양국민 목사님이 인도하는 영성훈련을 40여분 한 후 시작하는 연습은 10시를 훌쩍 넘어 끝난다. 금요예배 역시 한시간 먼저 교회에 모여 연습한 후 예배를 드리고 주일예배도 아침 7시에 모여 연습을 한 후 1부, 2부예배를 모두 드린다.

강윤식 집사는 주안에교회가 다우니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빈자리를 매꾸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봉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핵심을 관통하게 될지 몰랐다고 하며 이제 사명감조차 느껴져 모든 시간시간 최선을 다하려

애쓴다고 말한다. 최형선 집사님 역시 드러머가 급히 필요하다는 권면에 한번 두번 앉은 무대(?) 박스 안 그 자리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집중력을 떨어트릴 지경이 되었으나 기도학교를 통해 마음을 다잡고 수요일 연습이후 혼자 12시가 넘도록 연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최집사님의 드럼솜씨는 매주 다른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일취월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마병이 아닌 찬양대를 선봉에 세우고 전쟁에 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 우리의 삶을 세상사람들과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예배의 성패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찬양을 리드하는 찬양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비록 전문가라 자청할 사람 한명 없는 팀이지만 이 예배에 영적 생명력이 걸려있는 성도 한사람 한사람을 생각하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하늘 문을 여는 작은 예배자의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임한다.

찬양팀은 그 옛날 전쟁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알렸던 찬양대처럼 예배의 시작을 알린다. 울려퍼지는 찬양으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이어지는 설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는 찬양팀의 헌신은 서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감사가 넘치는 예배시간을 만들어 준다. 모든 헌신의 자리가 그렇겠지만 특별히 찬양팀은 간절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쉽게 응할 수 없는 사역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받은 상급이 또한 분명해 보인다. 찬양팀원들이 느끼고 있는 이 특별한 교감에 도전해봄은 어떨지~. 이후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들의 간절함 때문에라도 더 깊이 하나님과 교감하며 두손을 머리위로 올려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길 바라본다.

| 채은영 기자 |

■ 새학기 헌신과 다짐

말씀과 기도로 '내적성장' 섬김 훈련으로 '열매' 를

우리에게 보내신 자녀들을 볼 때면, 힘겹고 무거운 책임감이 한쪽에 늘 자리합니다. 나도 부족하게 서서 늘 주님앞에 싸우며 나가는 연약한 믿음인데, 어린 아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해야 하는 일이 귀하지만 참 벅찬 일임을 느끼곤 합니다. 선생님들의 중보기도와 함께 학생들도 새학기 맞아 성장되어야 할 믿음생활을 위해 두가지를 함께 하기로 다짐하고 진행합니다.

1-Personal Dedication으로는 삶 가운데 확장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 내적성장을 이루도록 하면서 뭇 사람들이 함께 격려/확인해줄 수 있는 행동지침으로 정하고 12월 중순까지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8시에 매일 기도하기', '하루에 3번 찬양하기', '하루에 한명 친구를 위해 기도하기', 등 작은 정성으로 시작된 다짐이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데 건강하게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영향력 있는 리더로 자라나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2-Team Serving은 공동체적 유익을 위해 아이들이 본인의 예배와 교회를 위해 앉아서 받아 누리기만 하는 자리가 아닌, 타인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대한 훈련입니다. 친구들이 팀이되어, 월별로 종목을 돌아가며 봉사합니다. 그 종목으로는 친구에게 격려카드 써주기, 예배실 정리, 쓰레기 정리, 책/장난감/소품들 정리, 웰컴팀, 예배셋업과 정리팀 등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도 바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역할은 얼마나 더 막중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느끼기에 교육부에는 늘 빈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듯도 합니다.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감당하며 한분 두분 함께해주는 교육부 스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이며, 새학기를 또 한번 같이 맞이하면서 새로이 조인해주신 분들 소개와 함께 한단계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

| 이니콜 전도사 |

■ 새내기 교사들 각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고 얻는 기쁨이 더 커요"

Sing Park(플러튼)

My name is Sing Park and I have been a teacher for LAUSD for 20 years. I have served for elementary department for a church in Irvine for around 8 years. I really enjoy teaching young kids about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nd try to impart his ways onto the kids. I hope to help the kids at ICCC embrace Jesus Christ and help them grow in faith.

조내리 성도(플러튼)

제 이름은 조내리입니다. 저는 현재 부에나팍 중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아이들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하기 전 항상 긴장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Ted Kim 성도(플러튼)

제 이름은 김현태(Ted Kim)이고 저는 IT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중에 ICKidz 를 섬길 기회가 생겨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착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끼는 모습과 항상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규화 전도사님을 통해 많이 배우고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을 맡아서 뒤에서 여러준비를 해주시는 집사님들 덕분에 더 힘을 얻어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정말 힘이 생기고 아직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배우는 중이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John Bae(밸리)

Hello! My name is John Bae and I work for Farmers insurance.
Here is a short introduction about being a Sunday school teacher. I always felt unqualified to be teaching kids because I'm afraid I would do a bad job. Possibly leading them incorrectly or not properly guiding them. Still, God reminds me of my time as a child.
As a child I grew up in church and learned about God as I grew up, but living in my pretty sheltered life when the thorns of this life came to choke me, my faith and foundation in God not strong enough and I eventually turned away from God. My path was a path God forged specifically for me and I feel that God wants me now to help forge a path for the future generation.
I'm still unqualified and it's still really tough handling kids, whatever God asks of me I will do my best to obey. I have two prayer requests: 1. Personally, that I can preserve and be the teacher God wants me to be. 2. For the students that I teach, may they be able to experience God and get to know how much he loves them.

Gloria Yi (밸리)

My name is Gloria Yi, I am a sophomore in college attending CSUN, and majoring in psychology.
Ministry has been something I've seen and heard but I have never really deeply participated in it.
A friend (Aaron) helped give me the courage to join the ministry to serve in ICKIDZ. I was nervous and feeling so out of place and scared of what to expect but now I feel so excited and happy to be serving, when I see the children at our church, their energy and happiness make me smile.

Julie Ahn(플러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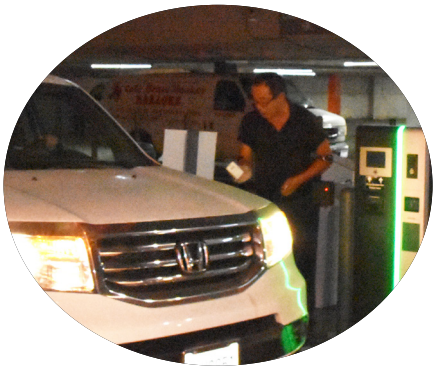
My name is Julie and am currently a freshman at Cal State Long Beach.
For three years now, I have been interacting with many kids through tutoring and working as a teacher at academies. Although there are inevitable challenges when working with children at times, I naturally grew fond of surrounding myself with children as they are incredibly adorable.
Thus, I consider this as a true blessing and am more than happy to take this new commitment as a teacher assistant for the children at our church. I also believe that this is an opportunity God has planned for me to recover and grow spiritually, emerging myself out of the past inactive years as a Christian. Overall, this new journey is not only exciting but also an important step in my relationship with God, so I will definitely put my best into this ministry!
I pray that God will keep me motivated and use me to my full potential to serve Him and the children who will further build God's ministry.

Eric Yun(LA)

안녕하세요 저는 ICC Kids 에 선생님으로 새로 들어온 윤태진(에릭)입니다.
어떤 친절한 집사님이 저에게 선생님이 되어보겠냐고 권유하여서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요일에 애들을 위해 섬기면서 한가지 느낀 게 되게 힘드네요. 말도 잘 안듣고, 에너지도 넘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애들을 돌보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애들이랑 놀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경험이었습니다. 애들이 활짝 웃는 걸 보면서 애들을 돌보는 경험이 처음은 아니지만 색다른 경험이었네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은 요, 애들이 이렇게 계속 쭉 활짝 웃으면서 크는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 숨은 일꾼 [최영은, 배석원 장로]

새벽 교회 현관문 앞에서 언제나 환한 미소로



한인타운의 한복판 주안에교회의 엘에이 채플 현관에서는, 타운의 고요한 새벽을 깨우는 경쾌한 찬양이 하루도 빠짐없이 새어나온다. 바로 새벽예배를 드리러 바쁘게 들어서는 성도들의 다급한 마음을 덜어주고 싶은 최영은 장로님의 현관문 열어주기 봉사와 늘 함께하는 멜로디가 그것이다.

80에 가까운 연세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관리로 체력을 유지하시며, 현관을 들어서는 모든 분들을 웃음으로 환하게 맞아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신 장로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으로 마주하는 장로님의 미소는, 고달픈 하루를 견뎌내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채워주신다.

또한 새벽예배 후 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 로서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지는 시간이다. 너무도 좋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스스로 자비를 털어서 각각 다른나라들의 언어로 전도지를 준비하셔서 직접 한분 한분께 전하며 다니시는게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린지 이미 오래이신 최영은 장로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닮아가야할 신앙의 롤 모델이라 해도 손색이 없으신 최고의 일꾼이시다.

또 한분의 빠질 수 없는 일꾼, 배석원 장로님께서는 매일 새벽예배 때 주차장 gate를 열어주는 봉사를 하시고, 매주 주일 아침이면 새벽같이 나오셔서 비가 오는 날이든, 추운 겨울 날이든, 땀에 흠뻑 젖으시면서 주안에교회 표지판을 여러 장소에 갖다 놓으시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섬기시며, 현관 앞에 물청소까지 깨끗이 해 주심으로 오시는 분들의 기분까지 쾌적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특별히 소속된 사역국이 아니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수호천사처럼 나타나셔서 말없이 도와주시는 늘 조용하신 성품의 배석원 장로님은 이제는 엘에이채플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으로 인정받고 계신다.

1980년대 초에 이민 오셔서 35년 가까이 "자동차 정비업" 한가지만을 성실히 운영하시면서 많은 분들에게 크리스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 노력해오신 배석원 장로님! 오늘도 자신의 헌신을 "순종 " 의 뒤에 감추며 항상 빚진 맘으로 헌신의 기초를 다지고 계시는 장로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또다른 주일 아침을 기대하게 된다.

최영은 장로님, 배석원 장로님, 화이팅!!!!!

| 오희경 기자 |

■ 밸리 안수집사회

연로한 성도님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발이 되어'

밸리안수집사회(회장 김경배집사)는 여러 봉사활동중 하나로, 주일날 아침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차량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시거나 몸이 불편해서 운전을 직접 하기 힘드신 상도님들을 위해 매 주일아침 밴차량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3호차는 정진복집사가 그리고 7호차는 이광조집사가 전담으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로 향하며, 예배를 마치고 점심식사와 교제를 나눈 다음 오후시간에는, 20여명의 집사들이 교대로 성도님들을 댁으로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이 1시간이 넘기 때문에 아침 10시 30분이면 교회를 출발하여 11시 45분경 성도님들을 모시고 교회로 향하는 봉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 이광조 집사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 20여분의 성도님들이 이 차량을 애용하고 계신데, 바로 집 앞에까지 와서 태워다 주고 또 예배 후에는 집 문 앞까지 데려다 주어 얼마나 편리하고 집사님들에게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밸리안수집사들은 나의 부모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 어떤 일이 주어질지라도 예수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늘 헌신하며 봉사하여 많은 성도님들은 물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드리고 축복합니다.

| 이광영 기자 |

■ 주안에빛 소감문(플러튼)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의 삶을"

김영희B 권사

"여호와를 기억하라" 주안에빛을 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맺은 관계대로 살기를 원하심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세상 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전하라고 하시며 향기를 내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며 마음을 두드렸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신다고 하시며 행함과 믿음으로 내게 보이라는 말씀이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지 않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혼합주의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라는 말씀이었다. 세상 것과 섞이지 마라. 즉, 우상 숭배 어떤 것 하고도 섞이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을 매일 하라는 마음을 주시며 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메세지였다. 하루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에게 예수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살아다오. 너희 가정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라. 맡은 바를 성실하게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가고 있는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가운데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오늘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더욱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은혜의 비에 흠뻑"

현은희 집사

교회에서 하는 많은 평신도훈련 프로그램을 애써 외면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교회가 이사가면 참석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 얼바인에서 플러튼까지 운전은 저에게 참으로 넘기 어려운 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많이 쉬워졌구나 하는데 벌써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호 6:3-4)" 이번 주안에빛 성경개론 코스를 하면서 정말 말씀이 늦은 가을비처럼, 이른 봄비처럼 나를 적시면서 많은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 는 안타까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를 계획하신 목적대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배우면서 말씀에 따라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회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구속하시는, 에덴의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욕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과 천국에 한 다리씩 걸치지도 않은 상태. 세상에 퐁당 빠져서 사는 나를 보면서 오늘은 내 삶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인지 점검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치열한 하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관점의 성경읽기 배웠어요"

남지아나 집사

나는 아직도 애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오는 내 안의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덮어버리곤 했었다. 답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의문들 때문에 질문과 답을 포기하듯 내던져버리고 다음을 읽어나가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다. 사단이 주는 것 같은 생각들이 내 머리속에서 집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누구나 겪는 과정인지 아님 유독 내가 겪는 유별난 과정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성경을 대할 때면 중무장을 하듯 마음을 다잡아야 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즐거움이면서도 한편 이런 저런 이유로 고뇌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주안에 빛 시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내가 겪어야 했던 이런 문제들의 이유를 알게 해 주셨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지금껏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기준을 두고 있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잔인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대할 때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잔인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임을 생각하지 못한 나의 교만에서 온 생각들이었다. 나는 성경을 나의 생각, 세상의 상식들을 잣대로 하여 읽고 마치 성경이 세상 이야기인 양 읽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잣대를 가지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예수님) 이시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을 성경의 주인공으로 올려놓고 읽는 누를 번번히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묘한 평안함을 느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그래서 또 쉽게 망각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창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존재이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해 걸어온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사랑의 구속 역사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그리고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의탁해야 한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써 내려 가졌던 것처럼 나의 성화, 나의 역사 또한 성령 하나님에 의해 써 내려 가질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맡겨야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 과정을 또한 우리는 배우고 있는 중일 것이다.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함은 물론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나는 어디쯤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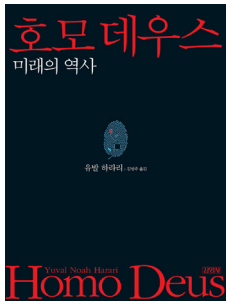
■ 추천도서 [Homo Deus–신이 된 인간]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로봇,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구가 보내준 "Humans"라는 10분짜리 영상물을 보고 느낀 바가 너무 컸습니다. Humans는 영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로 인공지능 로봇이 생활화 된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중 남편은 어느 날 가정 일을 잘 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구입합니다. 이 로봇은 외모가 사람과 똑 같이 생긴 아주 예쁜 여자 로봇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정리 및 청소, 아이들 돌보기 등 일반 가정주부가 해야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똑같은 인지 기능과 역할로 이 가정은 크나큰 변화가 생깁니다. 매일 부부와 아이들이 좋아 하는 맛있는 아침식사,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동화책 읽어 주기, 전에 엄마가 읽어 줄 때는 너무 서둘러 불편 했던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고 자상하게 읽어 주는 로봇에 익숙해졌고 어느 날 일찍 집에 돌아 온 엄마가 책을 읽어 주려하자 엄마가 읽어 주는 것이 재미없다고 아이들은 나가버린다. 이 유능한 로봇으로 인해 결국 이 가정 구성원의 관계가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수년 내로 운전자가 따로 없는 자동차가 스스로 거리를 주행하게 되며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수 만개의 직종이 인공지능 로봇으로 대체되어 사람들은 직장을 잃게 되리라 한다. 우리는 작년 한국의 천재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의 세기적인 바둑 대결에서 인간이 여지없이 패하는 것을 보고 인공지능이 곧 인간을 추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의 과학의 발달은 우리 인간의 생활이 어찌 변화 할지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능력과 과학의 힘은 끝이 안보이고 만사 해결할 것 같은 과학과 산업의 힘이 바로 몇 주 전 휴스턴을 휩쓸고 간 허리케인 하비와 플로리다를 강타한 어마의 위력 앞에 무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럽고 앞으로 인류가 나아 갈 길,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힘들어 할 때 앞서 내게 드라마 Humans를 보내준 친구의 소개로 "Homo Deus"란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고 이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수 유발 하라리(Yuval Harari)가 쓴 책으로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미래의 인간은 어떨까"라는 주제로 미래를 전망하는 책인데 Homo는 인간, Deus는 신이란 뜻으로 "신이 된 인간" 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김명주 씨가 번역하였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동굴에서 돌도끼를 사용하며 살던 인류가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치며 마침내 지구를 정복하고 이제 무엇을 추구하며 어디로 나가야 할지를 말해 줍니다. 또한 21세기 경제성장 덕분에 인간이 굶주림과 질병, 전쟁을 통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짐승 수준의 생존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린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고 호모 사피엔스를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일이다"(39페이지)라고 썼습니다.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같은 미국의 저명인사와 유시민, 김대식, 전병국 등 한국의 저술가들이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서두에 소개한 Humans 드라마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인공지능 로봇들의 기능이 너무 뛰어나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에서 로봇들은 매홀 홀인원이고, 로봇 의사들에겐 못 고치는 불치병이 없고 회계담당 로봇은 사람이 며칠 걸릴 일을 단 한 시간에 다 마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사람들은 골프백이나 옮겨 주는 보조자가 되고 수술실에서 수술 도구나 챙겨주는 조수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로봇들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로봇들은 모든 면에서 인간 당신들 보다 우수하지만 우리는 사랑은 할 줄 모릅니다.

꽤 오래전 한국의 강원룡 목사님 생존 시 들은 설교 말씀 중 지금도 기억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류가 우주에 흩어져 있는 별들을 자유로이 왕래 할 때 그 별들에 살고 있을지 모르는 생명체 다시 말해 외계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닐까 또는 4촌 6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우리와 10만 촌쯤 되는 친척은 아닐지 고민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해 가는 과학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상상을 초월할 미래에 다한 진단과 제언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까 고민 했습니다. 그러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 로봇이 고백한 말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몫입니다" 강원룡 목사님의 결론 "하나님은 지구만 창조 하신 것이 아닙니다."이 두 가지 명제로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고민을 해결 하였습니다.

| 나형철 기자 |

■ 소그룹 모임을 위한 쿠킹 아이디어

추석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 왔다. 추석상엔 꼭 있어야 할 것 같은 요리가 바로 토란국이다. 올 추석엔 그 어느때 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더 맛이 깊은 토란국을 상에 올려 보면 해서 토란국 요리법을 올려 본다. / 박창신 기자

토란국 TARO SOUP

재 료 (4인분 기준) 토란 큰 크기로 1 파운드 (껍질이 있는 알이 통통하고 촉촉한 것으로 고른다), 소고기 1파운드, 무 중간 크기 1개(1/2 파운드) 대파 2, 다진 마늘, 다시마 1장(사방4 인치), 국간장 4큰술, 소금, 후추가루 약간씩

조리법 1. 토란은 껍질째 데친 후 장갑을 낀 손으로 껍질을 벗기고 다시 쌀뜨물에 삶은 후 찬물에 담궈 아리고 칼칼한 맛을 제거한다. 2. 무는 도톰한 나박 썰기로 썰어 놓는다. 3. 대파는 송송 썰어 준비한다.4. 쇠고기는 찬물로 행구어 10컵의 끓는 물에 넣고 끓여 고기가 익으면 다시마를 넣고 함께 끓여 육수를 낸다. 5. 잘 삶아진 쇠고기와 다시마는 건져내어 한입크기로 썰어 놓고 준비된 무를 넣고 끓인다. 6. 무가 투명해지면 삶은 토란 넣고 끓인다.
끓어 오르면 불을 중간 불로 줄이고 토란국은 토란이 푹 무르도록 15분 정도 더 끓여 준비된 쇠고기, 국간장, 소금, 대파로 마무리하고 상에 올린다.

■ 목회자 칼럼

'믿음의 회복탄력성'

양국민 목사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심리학, 정신의학, 간호학, 교육학, 유아교육, 사회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개념이며, 분야에 따라 "극복력, 탄성, 탄력성, 회복력"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현대에 생겨난 신조어인 회복탄력성의 사전적 정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물체마다 튀어오르는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에게도 각자가 다른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성은 '역경'이라는 장애물을 만날 때에 나타나는 힘입니다. 사람마다 극복해내는 탄력은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강한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람들은 역경을 만나 잠시 떨어진 지점에 위치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원래 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을 통해 회복탄력성이 놀랍게 향상되기도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회복탄력성이란 인생의 가장 끝, 바닥에 닿았을 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꿋꿋하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 회복탄력성이 가장 많이 내재되어 있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요셉을 꼽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좇을 수 없습니다. 결국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부터 끊임없는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역경이 뒤따른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회복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긍정의 힘, 밝은 에너지로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으로 회복탄력성을 키워내는 훈련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시작될 때에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귀결될 수 있으며, 교회가 하나되는 것을 통해 이땅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물체마다 튀어오르는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마다 마음의 탄성이 다른 것은 믿음의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무게에 따라 역경과 좌절 속에서 일어서는 속도는 제각각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좇는 우리에게 사단은 계속해서 절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사단은 절망의 영이기 때문에 사단과 소통하며 소망을 얻는다면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역경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며, 절망과 좌절의 횟수가 더 적은 숫자로 줄어든다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회복탄력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회복탄력성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우비지니스

AmGreen SOLUTIONS, INC.
Deborah Hwang
Energy Consultant
Head Office
1367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06
OC Branch
13417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Cell. 949. 874. 8825
Tel. 844. 264. 7336
Fax. 213. 341. 0144
deborah@amgreensolutions.com
www.amgreensolutions.com

■ 칼럼

감사를 잊지 않았는가?

집 곁에 있는 공원으로 저녁 산보를 나갔다가 우리 회사에 새로 입사한 에이전트 부부를 만났다. 공원에는 애견을 데리고 나와 달리기를 시키는 사람들, 두 세 명이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아. 여기는 완전히 한국인 동네인데요." 그녀의 남편이 놀라워하며 이것 저것 기웃거리고 돌아본다. 자연히 여자끼리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 동네로 새로 이사 왔으니 내가 산보 코스를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골프장 주위를 돌 수 있는 길로 안내해서 걷다 보니 우리 집 앞으로 오게 되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내가 소고기 많이 넣고 우거지 된장국을 끓여 놓은 것이 있는데 한 그릇 갖고 가서 어머니께 드릴래요?"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해서 권해 보았다. 엄마는 유방암을 앓았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고, 남편은 안식교인이기 때문에 고기를 안 먹으니 본인 먹을 것만 싸 달라고 한다. RN 출신의 에이전트라 건강에 좋은 음식만 먹는 것을 보았기에 나는 넉넉히 한 통을 담아 주었다. 뜰에 참외가 열렸는데 밤이라 안 보이니 환할 때 와서 따 가라고 했더니 다음날 남편과 와서 따 갔다고 한다. 국이 맛있고 섬유질이 풍부한 열무 우거지와 콩나물이 얼마나 좋았던지 회사 올 때마다 무언가 내 손에 쥐어준다. 이것 먹어 보세요. 이것 써 보세요.

마음 속에 이렇게 감사해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심 놀라워 같은 나이 또래의 교회 성도들이 떠 올랐다. 우리는 흔히 구역 예배라던가 교회 주일 점심 봉사라던가 해서 만날 때마다 음식을 해서 대접하고 남은 것은 싸서 보내 주는데 이렇게 답례하는 것을 별로 본 일이 없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는 의례히 대접 받고, 함께 나누는 것이 상식화 된 것처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 몇 십 마일을 달려오신 목사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적은 숫자가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보다 당장 눈 앞에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은가? 거기다 그 자리에 미리 오셔서 기다려 주시는 성령님께는 얼마나 감사 드리시는지? 아침 일찍 나와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정한 감사와 사례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가? 내 집은 대강 치워도 하나님의 성전은 정성을 다해 구석구석 치우는 손길에 감사 한 적이 있는가? 내가 수고 하지 않은 밥을 먹으면서 수고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감사의 기도가 있었는가? 때로는 절뚝이며, 때로는 어깨가 빠져 나오듯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도 부엌에서 일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었는가? 내가 교회에 나와 헌금을 하고 밥을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도리어 묻고 싶어지는 내 믿음의 공동체는 아니기를 바라본다. | 이에스더 기자 |

주안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메시지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정화숙B 집사(LA)

저는 한국에서는 충현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의 교회생활은 선교와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과 개인적 신앙열정이 있어서인지 이에 관련된 교회훈련과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중 개인적 사정으로 5-6년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교회생활을 깊이 못하다, 이제 돌아와 하나님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던 중 가깝게 교제하며 지내던 권사님의권유로 말로만듣던 주안에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년전 CD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으심과 영적 각성을 주는 말씀 앞에 너무 놀라서 계속 말씀을 사모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배를 드리며 직접듣는 최혁목사님의 생명력있는 레마의 말씀은 역시 삶에 바로 적용시킬수 있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3군데로 나누어져 있었고, 모든 환경이 낯설어 마음을 정하기는어려웠습니다. 교회등록을 망설이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감동이 있어 주안에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어느새 3개월이 되어갑니다.

지금은 매주 수요일 교회에서 성경통독 하고 있고 새 성전이전을 위한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하면서, 어느새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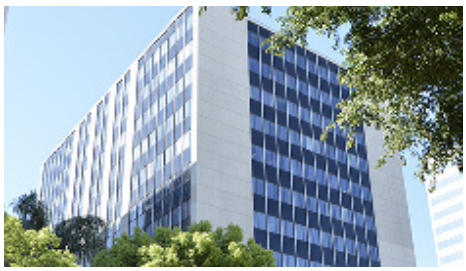
살아 운동력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주안에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교회의 훈련을 하나씩 성실하게 받으며 교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믿음의 선한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킨 사도바울의 신앙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기도하며 너무 좋으신 구역장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런 주안에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1.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주안에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교회와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어떠한 마귀와 이단 세력도 흔들지 못하는 시온성과 같은 굳건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1년에 1인 1명 전도와 태신자를 품어서 잉태하는 교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5. 천국복음을 전하는 세계선교에 온 성도가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 각 교구와 부서가 예수그리스도를 따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 담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아름다운 협력과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8. 중직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먼저 복음으로 깨어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9. 믿음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0. 우리 주안에교회가 세계만방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영우 원로장로 |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밸리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LA채플/ 1부 오전 8:00,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8: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30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 밸리채플

새벽 예배
밸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교육부 예배시간(교회학교)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금 저녁 7:3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목 저녁 7:15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수 저녁 7:30

ICY중고등부&영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Coram Deo(한어청년부) 밸리채플/ 주일 오전 11:00
LA채플/ 주일 오전 10:30, 플러튼채플/ 주일 오전 11:00

밸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주안에" 2017년 10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 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 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이에스더, 이지현,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남성우, 정인섭(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